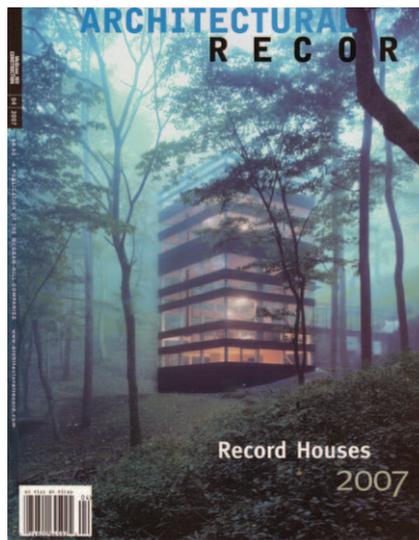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4월호는 주목할 만한 주택들을 선정한 Record Houses 2007와 주택에 딸린 수영장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전체적으로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기제로서 주거를 바라보는 잡지의 시선이다. 건축사가 마주하게 되는 다채로운 난관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묘한 해결책을 보면서 우리는 행위와 사고를 촉발하는 자극제로서의 주거와 건축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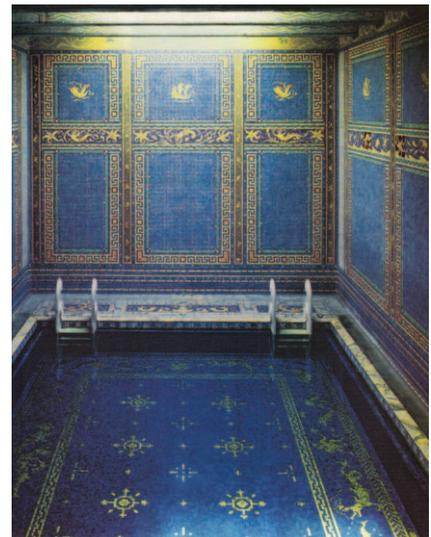
■ 신간서적 리뷰

이번호는 북미와 남미대륙에 걸쳐 주택의

어떤 양상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 미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향점을 고찰해 보고 있다. 특히 오스카 니마이어의 주택선 집은 일련의 거대한 작업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작업이다.

- Oscar Niemeyer Houses, by ALan Hess, New York, Rizzoli, 2006
- Sarasota Modern, by Andrew Weaving New York: Rizzoli, 2006
- Tom Kundig : Houses, edited by Dung NGO, New York : Prins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Plain Modern : the Architecture of Brian Mackay, by Malcolm Quantrill, New York : Prins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특집기사 : just add water



Marion Davies Beach House / Julia morgan

본지를 위해 활발히 기고를 하고 있는 John Gendall 과 Sarah Amelar가 특집기사의 형태로 현대의 주택에서 수영장의 의미를 수집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 수영장이 딸린 주택이라는 것은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수적인' 요소를 다 떼어놓고 생각해본다면 물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매력적인 소재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7개의 수영장은 그것을 포괄하는 주택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주택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주



1_ Casa Pite / Smiljan Radic 2_ Ferrar Residence / Bohilin Cywinski Jackson 3_ Villa NM / UN studio 4_ Ring House / TNA

요한 부분이다.

Marion Davies의 California Beach House에서 건축사 Julia Morgan은 균청색과 금색의 타일로 반짝거리는 실내 풀을 조성했다.

이 표면은 화려한 페르시아의 카펫을 연상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수영장 바닥에서만 쓰이던 종래의 관행을 벗어나 내부의 모든 부분을 일체화 시켜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사는 수영장이 아닌 또 하나의 거실로서의 '수영실'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물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을 하는 David Hockey는 그 자신을 위한 집에서 직사각형의 수영장의 형태를 포기하고 1950년대의 전형인 구부러진 타원형의 수영장을 재해석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 그린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는 바닥패턴은 수면의 패턴에 대한 은유이며 물에 의한 굴절과 왜곡에 대한 유쾌한 트릭이다.

칠레에 있는 Casa Pite의 옥상부는 콘크

리트 풀장이 대단히 인상적인 경관을 만들어 낸다. 대지 앞에 놓인 대서양을 향해 정해진 소실점이라도 있는 듯 쪽 뺨은 수영장의 형태는 렘 콜하스의 달라바에서의 아이디어가 알바로 시자의 정서를 만나 빛어진 듯하다. 여기서 건축사 Smiljan Radic은 주택과 도시 사이에 있는 바다를 선형의 형태로 연계 시킴으로써 자연의 향유와 도시에 대한 향수를 동시에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앞서 언급된 작품들이 물에서하는 행위를 통해 의미가 만들어진다면 Bohilin Cywinski Jackson이 디자인한 Ferrar Residence는 물성에 대한 즐거운 조작이다.

이 작품에서 건축사는 마치 전형적인 수영장의 단면투시와 같은 경관을 개념적으로는 익숙하나 실제적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장면이 아닌가 - 우리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있다. 수영장의 한쪽 벽면을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외부에서 말그대로 수영장의 '단면'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건축사는 특별한 뷰라는 소기의 목적 이외에도 수영장 내의

부의 소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Nataniel Fuster의 Casa Dolphine과 Jonathan Woolf의 Brick Leaf House의 수영장은 물이가지는 양면성 - 고요함과 유동성-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될 것이다. Fuster는 타공판을 통과해 떨어지는 빛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패적과 이를 흠뻑리는 물의 결합을 최대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Jonathan Woolf는 태초의 어둠과 빛 고요함을 지하 수영장에서 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여기서 물은 부드러운 바닥이며 어루만지는 손길이다. 그 이외의 모든 소재를 어둠속에 감추어 넘으로써 낯설지만 경험해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냈다.

■ 건물 유형 연구

Record Houses 2007

올해도 어김없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대지가 처한 조건들을 새롭게 해석한 주택들에



1. Ring House / TNA 2. Casa Poli / Pezo von Ellrichshasen

대한 Record 지의 선별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Villa NM(UN studio), Ring House (TNA), Brown House(Randy Brown), Casa Poli(PvE), Ohana Guest House (Cutler Anderson), Christ Church Tower(Boyarski Murphy), Loblolly House(Kieran Timberlake)의 7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Villa NM, New York (by UN studio)

뉴욕 주에서 UN studio에게 주말 별장의 디자인을 의뢰한 건축주는 근대건축의 열렬한 팬이었다. 건축주가 뉴욕의 위압적인 이미지에 대항했던 노이트라와 슌들러의 주택에 대한 선호를 건축사는 21세기적 감성으로 빚어내고 있다.

직육면체의 형태를 뒤틀고 융합시키면서 생기는 이질감을 주변 풍경을 고스란히 반사시키는 금빛 유리를 통해 완화하고 있다.(63빌딩 이후로 한동안 유행이 되었지만 요즘의 신축 건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 소재 말이다.)

이 주택은 뒤틀어지는 방식을 통해 각 입면이 다르지만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입면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금빛 유리는 주택 전체를 감싸면서 자칫 위화감을 불러올수 있는 매스의 거대함을 완화하면서 주택과 주변 자연환경의 비물질적 결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리패브 방식으로 제작된 스틸 패널은 매끈하지만 유리와는 다른 질감으로 건축물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입구레벨에서 보면 외관의 뒤틀림을 고스

란히 반영한 계단이 있으며 이를 지나면 거실 혹은 주방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나온다. 건축사 벤 반 버클은 이 작품을 통해서 블롭(blob)형태가 박스와 결합했을 때를 실현하고자 했다.

벽체와 바닥이 모두 일체화되어 공간의 연속성과 통일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공간 자체의 추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사의 조화로운 결합이 만들어낸 흥미로운 결과물로 이 작품은 기억될 것이다.

Ring House, Tokyo(by TNA)

도쿄외곽의 조밀하게 형성된 숲속에서 TNA는 주변의 나무들을 보존하는 방식의, 말 그대로 '좁은 대지 위에 올라가는' 수평의 줄무늬가 인상적인 주거를 제안했다.

마치 신문지를 반으로 접으면서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있어야 하는 놀이처럼 이 건축물은 최소의 발자국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수평의 띠는 이 주택에서 구조적으로 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관에는 그을린 목재(아키스기)로 마감되어 있다.

지면으로부터 3미터 정도 들어 올려진 거실은 이 건축물의 지향점이 주변 나무들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거실에서의 뷰는 나무와 나무사이를 "유영"하는 듯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된다. 이 주택은 투명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순수한 실험에 가깝다. 이를 통해 건축사는 일본어

로 화(和)가 나타내는 조화와 링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Casa Poli, Chile (by Pezo von Ellrichshasen)

깎아 지른듯한 칠레의 해안가 절벽위에 건축사 페소 폰 엘리히사우센은 거대한 콘크리트 큐브로 된 주택을 제안했다.

다공질의 석재블럭을 연상시키는 이 작업을 특징 짓는 개구부의 위치와 방향은 주변 뷰를 면밀히 관찰한 건축사의 섬세한 접근을 통해 모든 개구부에서 인상적인 경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잘라내진' 각각의 풍경들은 내부공간의 일부로서 벽면에 긴결하게 연계된다. 또한 거꾸집에 사용된 나무판을 내부 수납공간 입면에 재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관된 호흡을 가지고 있다.

하중의 부담을 위한 부재들이 겹으로 전혀 드러나있지 않으며 내벽 또한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공간은 흐르고 변이되는 그 미세한 결의 차이로 규정된다. 이 작업을 통해 건축사는 '모던'이라는 감각을 '새롭지만 서투른'이라는 감각에서 숙련의 감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선문대학교, 부천대학 출강)